비밀스럽고 난해하다면 《반야심경》이 아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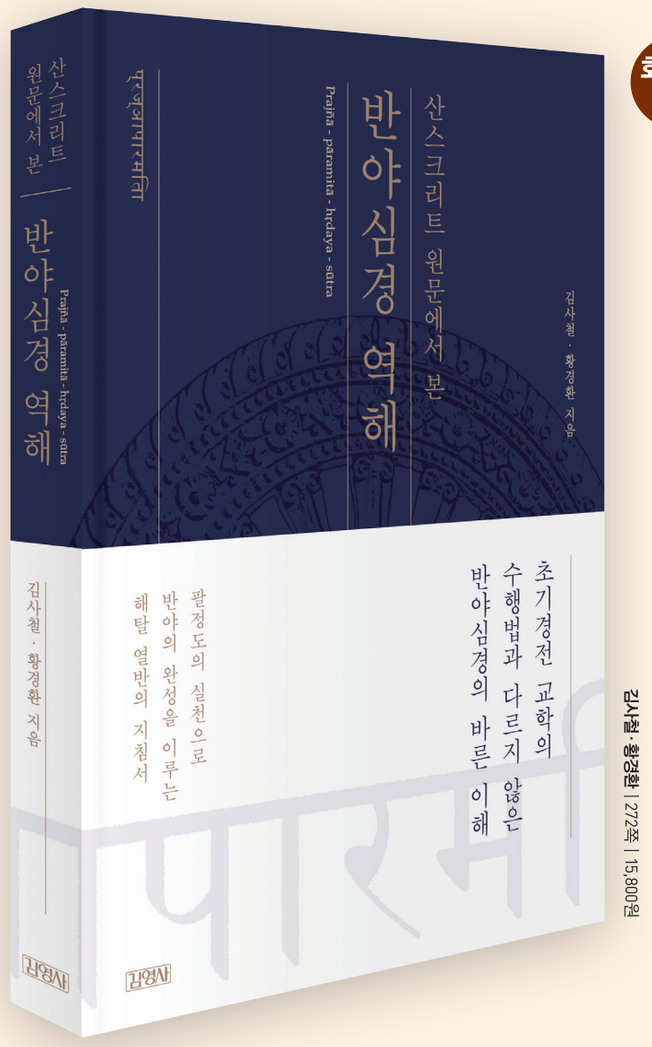
반야심경 역해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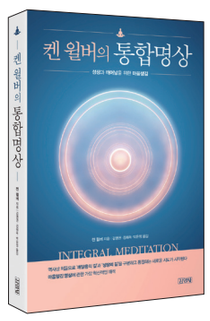
김영사

TEL :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성장의 길 vs 깨달음의 길 통합 마음챙김Integral Mindfulness 안내서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해석

동양의 '깨달음'과 서양의 '발달 및 진화' 이론을 통합하는 최초의 시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탐구 기법인 마음챙김을 재해석한 제3의 방법 '통합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켄 윌버의 통합명상

켄 윌버 | 김명권·김혜옥·박윤정 옮김 | 352쪽 | 15,800원

앉아만 있는다고 깨칠 수 있는가? 21세기에 최적화된 깨달음의 길,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과정과 원리를 밝히다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단번에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여 '답만 찾도록 집중'시키는 데 있다. 활구活句와 사구死句의 구분, 의심이 익어서 의정疑情·의단疑團이 되었다가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기까지의 수행과 정별 특징과 병통, 해결법 등 간화선의 요체와 구체적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밝혔다.



간화심결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수불 | 284쪽 | 13,800원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아침저녁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_백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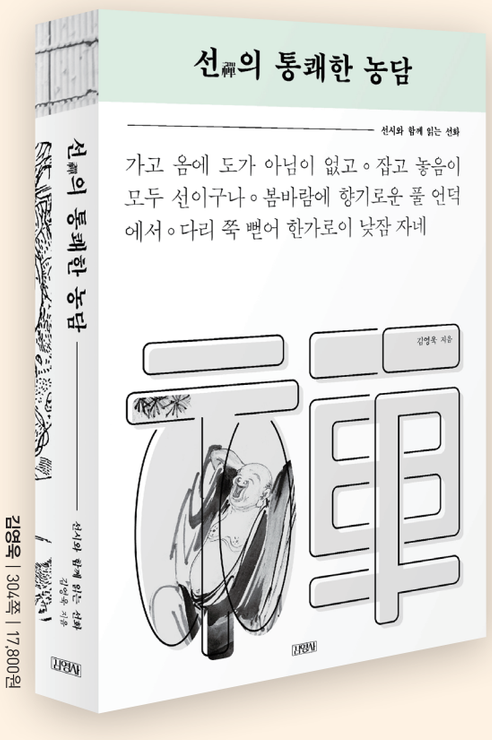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 2권)

한문본, 한글 한문 혼용본 | **김강유** 엮음 | 64쪽 | 9,600원

모든 그림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말하는 듯했다



김영욱 | 304쪽 | 17,800원

선시와 함께 읽는 선화

선禪의 통쾌한 농담

화제의 신간

옛 그림과 옛 노래로 마음공부하다

호쾌한 선線과 농담濃淡으로 풀어낸, 농담弄談 같은 선禪의 통쾌한 가르침

왜 스님은 강에 빠진 사내를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까? 왜 스님은 매서운 얼굴로 고양이를 그러쥐고 있을까? 왜 사내는 경전을 박박 찢으며 호기롭게 웃고 있을까? 왜 원숭이들은 물에 비친 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한중일 옛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선사들의 시와 함께 흥미롭게 담아냈다. 당신의 마음에 청량한 파문을 일으킬 불교예술 교양서.

★ 선화와 선시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펼쳐 보이면서 우리를 깊고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_한자경 ·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저자

★ 대담한 필치로 통쾌감을 선사하는 선화의 아름다움,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선시의 유머가 어우러져 독자에게 깨달음과 감동의 기쁨을 동시에 선사한다. _정여울 ·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김영욱 | 그림을 보며 차담茶談 나누기를 좋아하는 전통미술 연구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미술사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사화故事畵를 연구하고 있으며, 옛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짧은 글을 틈틈이 쓰고 매만지고 있다.